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 008 | 2021. 10.01

통일 그리고 재향군인회
박순제

9·9절 행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 정세
장광열

아프칸 사태에 대한 단상
홍성표

통일 그리고 재향군인회

박 순 제

(대덕대학교 국방해양부사관과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분단 73년, 이제는 통일을 준비하자

2021년, 분단 73년이다. 앞으로 27년이 지난 2048년이면 분단 100년이 된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1948년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들어섰다. 세계 역사상 동일민족이 100년이나 갈라져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가. 분단 100년이 되기 전에 한반도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최근 들어 통일에 대한 화두가 수면 위에서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100년 분단을 앞두고 말이다. 그러나 통일은 앞으로 한반도가 세계 속에서 강국으로 살아남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 실낱>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통일이 당장 내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 당장 와도 안 될 것이다. 아직 남과 북은 통일을 맞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분단 70여 년 동안, 남과 북 주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극도의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독일이 오랫동안 통일준비 기간을 거쳐

1990년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통일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서로 많은 소통을 했어도 통일 이후 풀어야 할 난제들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대두되었다. 우리에게 주는 타산지석이자 반면교사다.

〈통일한국군〉 재교육 전담 교육기관 창설

남북한 통일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재향군인회도 〈통일한국군의 미래〉와 연계해서, 흑여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싶다.

분단 100년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통일은 한국의 주도 하에 자유민주주의체제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군사측면에서 보면, 한국군의 주도 하에 북한 인민군 일부를 흡수해, 남북한 군은 〈통일한국군〉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은 분단 70여 년 동안 서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데, 특히 남북한 군대 조직과 군인들은 자기의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사상과 정신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민간 주민들보다 그 격차는 더욱 클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군과 북한의 인민군이 만나는 순간, 조직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 질시 등이 폭풍처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민군은 한국군의 조직문화에 저항과 반항을 하지 않고, 쉽게 동화 혹은 융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흡수되는 북한 인민군을 어떻게 동화시켜야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통일한국군의 전투력을 최고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흡수되는 북한 인민군의 한국군 조직문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통일한국군은 무기체계나 병력 등 외적인 통합은 물론 일치된 정신무장과 조직문화 등 내적인 통합을 동시에, 총체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외적통합 문제는 쉽게 초기에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적통합 문제는 사고와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과 동시에 바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노력 끝에 달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가장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흡수되는 북한 인민군을 한국 국군의 조직문화에 어떻게 동화시키고, 융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 한국군

장병들이 흡수되는 북한군 장병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안정화시키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흡수되는 북한 인민군을 대상으로 통일한국군의 조직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독일연방군은 <내적지휘센터, Zentrum Innere Führung, ZIF>와 같은 전담 교육기관을 이용해 흡수된 동독 인민군을 교육시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우리 역시 독일의 사례를 적극 도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인민군의 한국군 조기 적응을 위해 전담 교육기관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다. 또는 기존의 있는 군의 교육기관을 확대·개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군, 국가통일정책과 연계 교육기관 설립 추진

이때 향군의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향군의 자량이자 최대 자원인, 거미줄 같은 조직과 경험이 많은 인재풀의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의 조기 적응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을 만들거나, 기존 교육기관을 확대, 개편할 때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와 자유민주의체제, 한국군의 군인정신과 군대윤리 등 체제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텐데, 이를 향군에서 전담해도 될 것이다. 남북한 군대 조직구성원들 간 갈등관리를 위한 강사진 등 전담인력을 군사통합 이전부터 양성해 놓으면 통일과 동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독일 역시 서독군이 동독군을 동화시키기 위해 <내적지휘센터>를 이용해 연간 8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운용했다. 이처럼 전담 인력들을 국가적인 통일정책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런 제도를 향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해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의 정신전력을 전담하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 강사진이나 연구진 구성 등을 함께 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군의 정신교육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도 점차 통일 한국군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개편·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조직의 규모나 교과내용 등은 통일독일의 <내적지휘센터>를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이다.

분단 100년을 앞두고, 향군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풀어나갈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00년이 지나면 남과 북 주민들은 아마 판 나라 사람, 판 나라 민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욱 적대적 관계인 한국의 국군과 북한의 인민군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분단 100년이 되기 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남과 북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서 통일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의 <희망 실낱>이 <희망 대박>으로 바뀌지는 합리적 선택이 되었으면 한다. <희망 대박>의 통일문제에서도 향군이 적극 나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예비역 단체> 이기를 기대해 본다.

9.9절 행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 정세

장 광 열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전례 없는 9.9절 경축 행사 진행

지난 9월 9일 0시에 기습적으로 실시된 북한의 9.9절 행사는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북한의 사회주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앙보고대회, 영화상영, 미술전람회, 체육경기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예술공연, 야회, 문화오락행사, 군사 퍼레이드 등이 개최된다. 이날 실시된 퍼레이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면에서 과거와 대비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퍼레이드의 시기이다. 북한의 중요 행사는 5의 배수의 해를 정주년이라 하여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예를 들어 5주년, 10년, 15주년...), 이번 9.9절은 73주년으로서, 근래 들어 2013년(65주년), 2018년(70주년) 등의 정주년 이외에는 퍼레이드를 실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날 퍼레이드는 의외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군다나 금년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을 포함하면 최악의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년 2회의 퍼레이드를 실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퍼레이드의 진행이다. 이날 퍼레이드는 정규군을 완전 배제하고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노동적위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무기는 포와 같은 일부 재래식 무기만 선보였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퍼레이드 방식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의 연출이었다. 열병부대의 점검도 군 지휘관이 아닌 평시 이들을 관리하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에 의해 실시되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총비서의 행동이다. 그는 행사를 위한 연설을 하지 않았으며 행사가 종료되고 그가 자리를 떠난 다음 김일성광장에는 주민들만 남아 예전처럼 불꽃놀이 축포 속에서 신명 나게 춤을 추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보인 행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는 퍼레이드에 앞서 대내·외 상황과 관련한 연설을 행하여 왔으며 심지어 지난 해 10.10절 퍼레이드에서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눈물까지 보이는 등 나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다.

현 북한 내부정세 진단

2019년,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도 중국과는 동맹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세계적인 이목으로 인하여 북한과 드러내놓고 본격적인 관계향상에 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총비서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항상 북한을 옹아매어 왔던 것이 유엔의 대북제재이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인하여 작성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로부터 시작된 대북제재는 이후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적인 도발로 인하여 그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도달하였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북한 사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으며 방역을 위한 당국의 통제와 간섭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은 올해 초에 열린 제8차 당 대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매년 1만호씩 총 5만호의 살림집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평양에 1만호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사업이 김정은 총비서의 의지로 시행되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군과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 불안으로 인하여 각종 자재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금년도 북한은 기록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한의 함경도 지역과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이 상당한 수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구를 위한 자재 부족은 물론 무리한 노력동원으로 주민들의 기본 생활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및 제언

현재 북한 내부는 정권초기에 비해 김정은 총비서를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누적된 자연적·인재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고통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정권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북한 정권의 핵심계층에서 인지하면서 주민을 독려 및 위무하기 위해 금번 9.9절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과거 행사를 대외 과시 및 대내 홍보용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하던 사례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금번 퍼레이드 행사의 외형적 모습과 북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①김정은 정권은 현재 극도로 악화된 경제에 의해 격양된 주민들에 대한 위무를 사활적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②당을 전면에 내세워 내부체제를 강화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기존의 군부의 기득권을 약화시켜 군을 당에 복종시키는 한편 ③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체계를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두고 당분간 기존의 재래식 전력의 증강을 억제할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9.8절 행사의 진행을 비롯한 최근 북한의 내보이고 있는 변화무쌍한 행동을 바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미연합정보공조체계의 강화이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북한사회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블랙박스 되어버렸다. 한미 양국의 대북 정보수집 및 공유체제를 강화하고 통합 분석체제를 구비함과 동시에 실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준비이다. 한국은 평소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며 관련 제원도 마련하여 왔다. 문제는 지원 시기와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의 정치적 환경이 성숙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원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에만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은 당분간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무기체계에 대한 증강에 집중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도-파키스탄의 경우를 보면, 양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당시에는 그 누구도 재래식 무기 증강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양국은 폭발적인 재래식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핵은 사용할 없는 상징적 무기”라는 말도 있다. 북한이 올해 초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신형무기를 대거 등장시킨 점을 고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증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유심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아프간 사태를 보는 시각

홍 성 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 융합학과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스스로 지키고자 하지 않는 나라, 외국군이 지켜낼 수 없다

2021년 8월 31일 미국은 20년간에 걸친 아프간전쟁을 종료하고 아프간 주둔 미군을 전면 철수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대한 항공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아프간전쟁은 미국이 유엔을 동원하여 테러세력에 대한 응징을 결의하고 테러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했던 탈레반정권을 응징하고 권좌에서 축출하기 위해 2001년 10월 7일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아프간전쟁을 일으킨 지 20년 만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다국적군을 주도하여 탈레반을 몰아내고 대신에 아프간을 친서방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지원을 20년간 지속했지만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1천 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그 중 1백 억 달러는 가니 정부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장비 공여였지만, 그 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참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뭐니뭐니해도 아슈라프 가니 정부의 무능력과 부정부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스스로 지키고자 하지 않는 나라를 외국군이 지켜낼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 국가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미군 철수

사람들은 아프간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국가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그들의 계획대로 미군을 철수시킨 것이지, 탈레반에 패퇴하여 아프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탈레반은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미군이 철수하고 가니 대통령이 해외로 야반도주하자 스스로 궤멸된 정부군까지 도주하고, 이 틈을 비집고 탈레반이 들어선 것이다. 미군이 철수작전을 완료할 때까지 탈레반은 일거의 공격도 하지 못했다. 물론 양측이 합의한 협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탈레반은 감히 미군을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체의 반격적 군사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을 패배로 본다면, 역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란 무엇인가? 아프간에 영구히 주둔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탈레반의 장악 아프칸 붕괴, 국제사회 도움 절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은 이미 붕괴된 국가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성과 아동학대는 물론 언론과 지식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국제사회에 구걸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에 긴급구호기금 600억 달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탈레반은 국가통치를 위한 능력과 규범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탈레반 조장들의 즉흥적 판단에 국민들은 아비규환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길거리에서는 즉결처분이 횡행하고 있고, 국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탈레반의 만행에 공포에 떨며 숨죽여 지내고 있다. 이것이 승리했다는 탈레반의 실태이다.

아마도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는 일정기간 동안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프간의 부국강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아와 병고와 탈레반의 폭정에 시달리는 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